

'94 최은희 춤

Choi Eun hee Dance Theatre

'94.3.2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제 1 부 : • 여인등신불
제 2 부 : • 새 물 맞 이

토속적 정서로 풀어내는 「풀이」의 춤
최은희의 춤은 언제나 어둠속의 맑음,
즉 냉랭한 속에 정념을 지향하고있다.

*공연문의 / 경성대학교 무용과
T. 620-4960

*예매처/

- 남포동-문우당 서점 (T.245-3844)
- 광복동-하모니피아노 (T.246-4000)
- 서면-통보서적 (T.803-8000)
- 동래-온천약국점 (T.557-0911)
- 대연동-면학서점 (T.623-9404)

● 후원/경성대학교 예술대학

'94 최은희 춤

로속적 형식과 만나는 풀이,의 춤

최은희씨는 82년부터 무용작가로 출범한 이래 누구보다도 안정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진기에 한 무용가이며 개성있는 무용가로 각광을 받고있다. 이러한 최씨의 작품저변에는 언제나 민족 시대 환경이라는 보이지않는 전통적 의식이 깔려있고 그것이 또한 작품창작의 기판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단순한 감정의 유희를 넘어 자신의 체험의식이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감정적 사상적 체험에 의한 창작을 지향하는 이른바 물개인적 작가로서의 일관된 작품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중심에는 항상 아르카익한 주술성과 신비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가 구사하는 무용언어도 표현의 자유로움을 얻기위해 전통적 정형성을 해체하고 원초적 무용언어에서의 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무용공간의 환상성이 가지는 정신정화적 기능을 최대한 창작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그녀는 인간의 한정된 감각적 층동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을 우주적 창조력에 기대하는 하나의 소재로서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언제나 자기작품 속에 스스로를 영적사제로 임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또한 최은희 예술을 특징지어주고 있다.

故 姜理文 (국제신문, 89.4.25) 評論

최은희는 '79년부터 전통과 현대와의 접목에 창작의 축을 두고 15년간 타 장르간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없는 실험작업을 지속해 오면서 개성적 춤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무용가이다. 그동안의 일련의 작품들 가운데는 무속의례의 형식을 빌어와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한 되새김을 풀어내고 새로운 삶으로서 재충전과 활력을 표현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82년 10월 대한민국 무용제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85년 부산에서 한국무용으로는 처음 순수민간 예술단체인 '춤배기춤'을 탄생케하여 예술감독 및 연출을 맡아 단원들과 춤의 시대적 반영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희생되어진 소외의 삶을 주제로하여 소극장활동, 야외춤, 국내외에서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부산 춤계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보다 한국춤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생활 속의 살아있는 예술로써 춤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부 : ● 여인 등신불
- 생명 품은 여인의 환희와 고통 -
- 2부 : ● 새 읊
- 民草들의 길고 긴 인내는 맑은 물소리로 죽은 뿌리를 살려내고 -
- 물 맞 이
- 이 땅에서의 새생명 회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맛이곳」 -

스텝

안무·구성 / 최은희
안무 / 윤보경, 신은주
음악 / 신혜영
음미 / 정진운
의상 / 김성만
무대감독 / 권영준
조음 / 신상준
음향 / 정정식

출연자 명단

윤보경, 신은주, 황지영, 손미란, 송은주
장운정, 홍이경, 이정식, 전현철, 천병일
김종덕, 임형준, 김문경, 김정원, 김현지
이경희, 이영미, 이지영, 이현정, 정영심
한수정, 한영화, 박지민, 김영란, 김정희
김효정, 박미정, 박우영, 박은진, 양성미
오수연, 윤수경, 이영주, 이화성, 이희정
정재연, 조미성, 최은희

연혁

- 1982-91 제1회~제5회 개인발표회 (문예회관, 경성대 콘서트홀, 문화회관)
- 1982. 10 제4회 대한민국무용제 "뉘들림" (대상수상, 문예회관)
- 1986. 3 창무 큰 춤관 기획공연 "제웅맞이" (창무출터)
- 1988. 9 제24회 올림픽대회 요트경기 개회식 안무 "파도를 넘어서"
- 1988. 10 춤과 미술과 시의 만남 기획공연 "외출하다" (창무출터)
- 1990-93 제1회, 제3회 대학무용제, "검은산 하얀방 넘어", "물맞이곳", "영상희상 불보살" (부산문화회관)
- 1991. 9 동서베를린 민속문화축제, 개인공연 (달레마 박물관)
- 1993. 3 '93 한국현대춤 작가 12인전 "백방" (문화회관)
- 1993. 6 최은희 춤배 배기춤 지방순회공연 (청주, 창원, 울산)
- 1993. 10 제15회 서울무용제 "여인등신불" (문예회관)
- 1985-89 '91 제1회~제5회, 제7회 한국무용제전 참가 (문예회관, 국립극장)
-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부교수
춤배기춤 예술감독 (사단법인) 한국 무용연구회 이사
민속춤위원회 기획위원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 역임



'94
최은희 춤



CHOI EUN HEE DANCE PERFORMANCE

삶과 춤을 위하여

쉬임없이 오직 춤에의 열망으로 내달음친 나날들... ..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세월들 속에서 화려한 무대와
허무함이 교차되던 나날들은 오직 한 순간 순간 춤에 바쳐졌던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끈끈한 인연으로 엮어진 제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더욱이 지난 춤의 해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을 치루어 낸 것은 그러
한 밑알들과의 만남이 없었던들 그 많은 행사를 무사히 치루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안
도감과 함께 올 갑술년 새해에도 나의 삶과 춤이 함께하는 춤관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춤관에서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계승과 인식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작업터를 찾아 나서서 자연의 순수함을 찾고 겸허한 자세로 자연을 바라보며 춤에의
영감을 떠올린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작품들의 재충전시간을 갖고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이 있기까지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묵묵히 따라준 배김새 단원과 재학생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느끼고 스땀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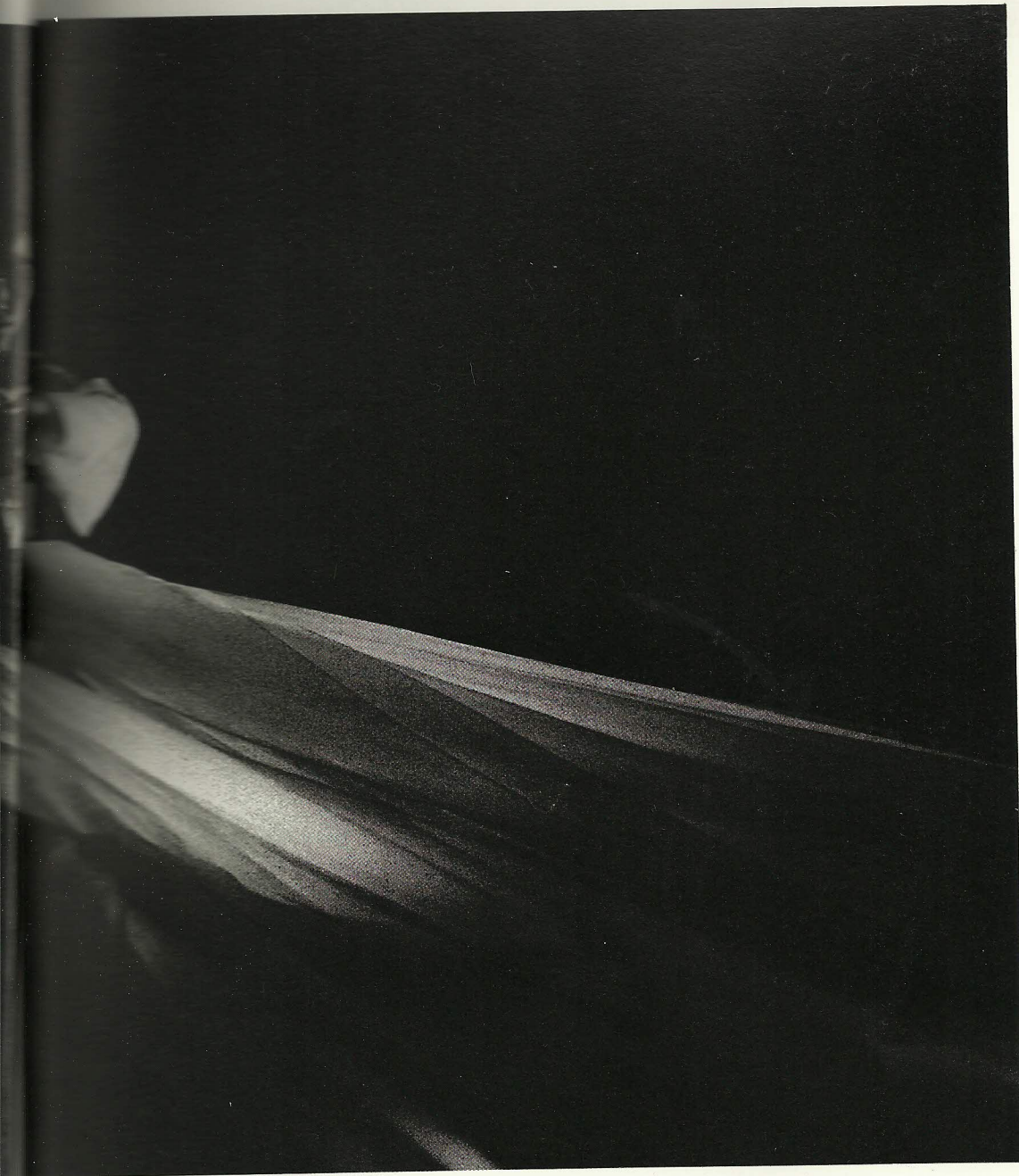
1994년 3월 24일
최 은 희



프로그램

스텝

안무 : 최은희
대본 : 장정임
안무보 : 윤보경, 신은주
음악 : 신혜영
미술 : 정진윤
무대 : 권영준
조명 : 신상준
음향 : 정정식
의상 : 김성만



안무의도

이번 공연에서는 철저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한 체험적이고 표현적인 작품과 새해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자 원초적 제의적 춤 방식을 빌어 집단 신맞이굿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올려집니다.

제1부 [여인등신불]은 체험론적 생활춤으로 여인네들이 갖는 고유한 심성을 풀어보고자 생명을 품은 여인의 환희와 고통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끈끈한 인연들, 인내로써 감내하여 온 우리 어머니네의 지순한 삶을 체험적, 유희론적으로 형상하여 본 것이고

제2부 첫번째 순서인 [새움]은 '어두운 날들의 바람 그치고'(91년 초연됨)중 독무로 민초의 길고 긴 인내는 새로운 싹으로 돌아난다는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신뢰감의 균형이 깨어져 인간자신의 생명체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이즈음 제2부에서의 [물맞이]는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천지자연과 어울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연주의를 토대로 삶의 경험과 생활에서 느끼는 감흥과 집단 신명춤판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화합하는 이상향에 대한 바램과 기원으로 제시하여 본 작품입니다.



1 부

여인등신불 (초연 93년) 글 : 장정임

- 여성은 제 몸속에 우주를 품는다. 사랑과 잉태의 신비 출산의 고통과 법열이 비구름과 태양으로 여인의 몸 속에서 교차한다. 마침내 신탁처럼 태허를 울리며 출생한 생명, 그를 키우며 칠정오욕을 이기는 기나긴 세월에 여인은 어머니란 등신불이 되어간다.

여성의 혼이 가지는 한없는 부드러움과 인내, 생명의 태줄에 운명잡힌 숙명, 자신의 영혼과 피를 실삼아 울을 짜는 모습을 무대위에 등실 "여인등신불"로 떠 올려 보았다. <등신불(等身佛) : 사람의 키와 똑같이 만든 불상>

작품해설

서막 : 사랑은 구름의 너울을 쓰고 환상의 너울을 입지않은 사랑도 있을까.

몽개구름처럼 희고 하늘 끝까지 부풀어 올라 마침내 적시는 비로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조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남녀의 천둥같은 만남과 봄비람같은 사랑. 이 모두는 자연이 예정한 아름다운 약속이다.

1 장 : 흰불의 꽃송이들

여자의 몸 속에 달빛처럼 번지고

이슬처럼 스미는 생명의 신비, 잉태한 여자의 기쁨과 놀람이 몸속에 흰 불의 꽃송이를 피운다.

2 장 : 아가의 울음소리 - 문득 하나의 태허를 울리고

사랑의 행복뒤에 오는 고통의 불바다.

자신을 불가마에 넣어 죄의 업고를 태우고

오뇌와 비원을 태우느니 - 찢어지는 살점

아득한 범패소리

3 장 : 여인등신불

하얀 잠이 가득히 오고 육체의 모든 문이 닫히며

마음 밖으로 불어오는 향내나는 바람.

여인등신불 등실 떠오른다.

*출연 : 신은주, 황지영, 손미란, 장운정, 홍이경, 김문경, 박재현, 한수정, 이경희, 이정식, 최은희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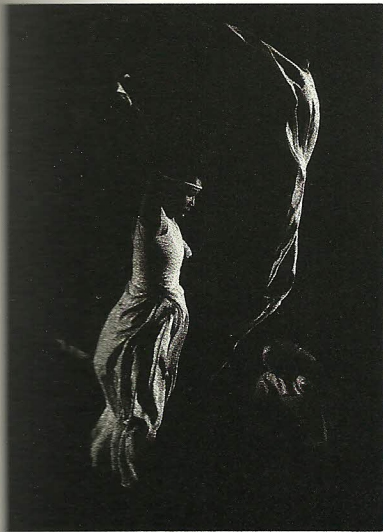
새움 (초연 191년, 어두운 날들의 바람 그치고 中 독무부분) 글 : 장정임

민족의 수난사에는 개인사도 섞여있다. 대립과 갈등의 인간적 숙명에 붙들려진 삶. 늘 수난 당하면서도 먼저 화해하는 우리 민족의 성정이 하늘의 섭리를 닮아있다. 약한 것들의 슬픔과 인내, 저항보다 용서하는 자연귀의의 민족성이 슬프도록 아름답다. 그것은 존재를 향한 경외심이라. 얼마나 순결한 민족인가, 얼마나 순정적인 민족인가.

불과 바람이 만나듯
하늘과 땅이 만나듯
구름과 비와 천둥이 만나듯
우리는 만나리 살아있는 한
사랑과 미움 갈등과 평화
부딪히고 번민하고 용서하는 일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이
불행하고 행복한 그 모든 일
언제나 어두운 시간이 와서
바람불고 추위도
아침이면 풀들이 열은 발로 일어서
햇빛보다 먼저 이슬을 털듯이
짓밟힌 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마네
어두운 날들의 바람 그치면
날아가는 새들 피어나는 꽃을 보아
천지는 이슬들을 보아
천지는 눈부신 조화 속이니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인 것을...

출연 : 최은희

물맞이 (초연 92년)



본 작품은 전체적으로 원초적인 제의식과 고유한 민족심상에 바탕을 두고 전통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그 한계 및 표현의 무대화를 통하여 원초적인 정서와 함께 오늘날 현대인에게 심금을 전해줄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어 첫째 현실 모방에 바탕을 둔 극적인 갈등이 문제되기보다는 時空을 초월한 상상력에 바탕을 둔 삶의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대중과의 화해와 합일을 중요시 하였고, 둘째 플롯, 성격, 사상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스펙타클한 장엄미와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에피소드적인 구성으로 또다른 차원높은 보편적 종합 무대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지양하여 보았다.

작품해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 신화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맞이굿으로 구성하여 집단적 신명체험을 가능케하는 기원제적 의식 춤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낙동강은 태초로부터 이 고장의 젓줄 노릇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우물파서 물 마시고 밭갈아 밥먹을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우두머리와 함께 구지봉이라는 영험한 산에서 신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 땅을 파면서 춤과 굿으로 신내림을 받아 수로왕의 탄생을 맞이하였는데 가락국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 첫 뱀의 날을 계욕일(契浴日)이라고 하여 김수로왕을 기념하고 물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굿놀이를 재현하였다.

물(水)은 인류생명의 원천이자 원초적 삶의 터전이고 새생명, 생명탄생, 생명정화를 가능케한다. 이러한 물의 생명력을 몸으로 맞이하는 물놀이로써 오늘의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맞이굿을 형상화 하고자 한다.

출연 : 윤보경, 신은주, 황지영, 손미란, 장윤정, 홍이경
 전현철, 천병일, 김종덕, 임형준, 김문경, 김정원
 김현지, 이경희, 이영미, 이지영, 이현정, 한영화
 정영심, 한수정, 곽지민, 김영란, 김정희, 김효정
 박미정, 박우영, 박은진, 양성미, 오수연, 윤수경
 이영주, 이화성, 이희정, 정재연, 조미성